

레저 & 트래블

경북 봉화군 비나리 마을

물고기 잡고 고구마 캐고 山寺음악회도 듣고

아~ 평화롭다, 산골의 가을



비나리 마을 앞 운곡천에는 1급수에서 사는 온갖 민물고기가 살아 들깨를 이용하거나 낚시를 할 수 있다. 밭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캐는 농촌체험도 가능하고, 자신이 캔 고구마나 감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진 오른쪽)

잊을 수 없는 강변도로경북에서 가장 오지로 손꼽혔던 봉화. 그 중에서 명호면 비나리마을은 봉화읍내에서도 거리상으로 꽤 떨어져 있다.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기 전에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던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져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런 조건이 오히려 마을을 청정 지역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비나리마을로 가기 위해서 봉화읍에서 36번 국도를 30분가량 타고가다 녹동삼거리에서 35번 국도를 타고 안동방면으로 방향을 잡아 달린다. 35번 국도는 줄곧 낙동강의 상류인 운곡천을 끼고 달리는데, 풍광이 아름다워 곳곳에서 차를 멈추게 된다. 덕분에 비나리마을 주민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하천은 한참 상류임에도 폭이 제법 넓다. 물은 맑아 바다에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바위들 사이로 들락날락 거리는 봉어나 격지, 피라미 등



비나리마을의 또 다른 자랑은 산골 미술관이다. 10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남편과 함께 귀촌한 서양화가 류준화(45)씨가 만든 미술관인데, 나뭇잎, 나무토막으로 장승, 솟대 등을 만들 수 있다.

청량산 단풍길비나리 마을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안동 방면으로 10분가량만 달리면 연이어 솟은 바위 봉우리와 기암절벽이 나온다. 청량산이다. 청량산은 '입 벌리고 들어갔다 입 다물고 나온다'는 산이다. 신선

의 풍모를 닮은 비경에 놀라 짝 떨어진 입은 산을 나온 뒤에야 혀를 남에게 알려질까 꼭 다문다는 것이다. 청량산은 금강방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봉우리 12개가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연꽃의 꽃술 자리에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원효대사가 세운 청량사가 있다. 청량사는 가람의 모양이 아름다워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국 절 집 중 최초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유행 시김으로써 더욱 이름을 떨쳤다. 이번 주말에는 장사 익씨가 관을 벌일 요량이다.

청량산 입구에는 청량산을 배경으로 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지역특산물 등을 모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산림사한' 중 한 사람이 김삿갓을 짊어 집자비도 거의 실물 크기로 전시돼 있다. 입장은 무료다. 문의=마을정보센터 054-673-1927 (부산일보 제공) /글=박진국기자 gook72@busanilbo.com /사진=이성일기자 silee@busanilbo.com

을 쉽게 볼 수 있다. 수량이 많고 물살이 급해 여름철이면 래프팅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다고 한다. 차로 20분가량 가다보면 비나리마을 일간관이 나온다. 비나리마을이라는 이름은 마을 입구 나루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낙동강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영양 지방으로 가는 나룻배를 띄우는 나루터와 오고가는 길손이 머물던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보이는 건 전부 산과 물뿐이다. 마을 뒤로는 풍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강 건너 편에서 불끈 솟아오른 청량산 자락이 막아선다. 그래서 비나리마을은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농촌사는 거의 잊지 않고 밭농사가 대부분이다.

고구마 캐고 물고기 잡고비나리마을 앞을 흐르는 운곡천에는 1급수에 사는 온갖 종류의 민물고기가 산

국내의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 '형용할 수 없이 ○○한'이다. 글을 써서 먹고사는 사람의 게으름과 내공부족을 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관공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경북 봉화군 비나리마을의 아름다움은 말과 글로써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 노랑계 물들어 가는 산이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 자연을 배경으로 오롯이 들어앉은 마을은 평화 그 자체였다. 땀을 스치고 지나는 가을바람에 마음이 어찌럽다면 비나리마을로 가보자. 산골마을의 고요와 풍요로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다. 격지, 피라미가 때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어른 손바닥 크기의 쏘가리로 잡을 수 있다. 민박을 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면 뜰채를 빌려준다. 얇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방식의 고기잡이를 '가잡이'라고 불렀다.

좀 더 큰 고기를 잡고 싶다면 낚시를 하면 된다. 동네 슈퍼에서 간단한 낚시대를 파는데 한나절에 봉어나 쏘가리를 20~30마리씩 잡을 수 있어 손맛이 쏠쏠하다. 입질이 부진하면 동네 주민들이 낚사료를 한 바가지씩 물에 뿌려 주는데 고기가 연방 물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낚시가 싫증난다면 밭으로 나가 감자나 고구마 캐기를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손님들의 농촌체험을 위해 밭을 내어주고 호미와 손 삽도 빌려준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퇴비만으로 키운 고구마는 어란이나 머리통만큼 큰 것도 있다. 직접 손으로 캔 고구마나 감자는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민박집에 부탁해 구워 먹을 수도 있다.

습이나 산나물, 약초 트레킹도 비나리마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이다. 경험 많은 주민의 도움을 받아 심산유곡에서 직접 송이와 약초를 캐는 심마니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송이는 최근 채취 시즌이 막 끝나 아쉬움이 크다.

비나리마을의 또 다른 자랑은 산골 미술관이다. 10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남편과 함께 귀촌한 서양화가 류준화(45)씨가 만든 미술관인데, 나뭇잎, 나무토막으로 장승, 솟대 등을 만들 수 있다.

청량산 단풍길비나리 마을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안동 방면으로 10분가량만 달리면 연이어 솟은 바위 봉우리와 기암절벽이 나온다. 청량산이다. 청량산은 '입 벌리고 들어갔다 입 다물고 나온다'는 산이다. 신선

의 풍모를 닮은 비경에 놀라 짝 떨어진 입은 산을 나온 뒤에야 혀를 남에게 알려질까 꼭 다문다는 것이다. 청량산은 금강방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봉우리 12개가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연꽃의 꽃술 자리에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원효대사가 세운 청량사가 있다. 청량사는 가람의 모양이 아름다워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국 절 집 중 최초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유행 시김으로써 더욱 이름을 떨쳤다. 이번 주말에는 장사 익씨가 관을 벌일 요량이다.

청량산 입구에는 청량산을 배경으로 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지역특산물 등을 모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산림사한' 중 한 사람이 김삿갓을 짊어 집자비도 거의 실물 크기로 전시돼 있다. 입장은 무료다. 문의=마을정보센터 054-673-1927 (부산일보 제공) /글=박진국기자 gook72@busanilbo.com /사진=이성일기자 silee@busanilbo.com

을 쉽게 볼 수 있다. 수량이 많고 물살이 급해 여름철이면 래프팅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다고 한다. 차로 20분가량 가다보면 비나리마을 일간관이 나온다. 비나리마을이라는 이름은 마을 입구 나루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낙동강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영양 지방으로 가는 나룻배를 띄우는 나루터와 오고가는 길손이 머물던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전라도 맛 기행

광주 내방동 '우아관' 돼지갈비해물찜



색다른 만남이 빛은 '환상의 맛'

조린 국물에 비벼먹는 밥 탄생 절로

단풍이 곱게 물들고, 억새는 햇빛과 어울려 은빛 바다를 연출하는 가을.

집안에 있으면 손해안 듯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가족들이 많아지는 때 여행도 좋지만 먹거리 걱정이 아닐까 싶어 고민이 깊어진다. 아이들은 해산물 음식, 아빠는 얼큰한 국물을 생각해 가족간의 메뉴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광주시 서구 내방동 311-5 우아관(사장 김성근)에 가면 이러한 메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우아관은 한우생고기 전문점이지만 가을 맞이 메뉴로 '돼지갈비해물찜'을 마련했다. 삼호축산에서 엄선해서 가져오는 돼지갈비를 대과와 사과, 배 등 과일양념을 해서 1차 삶는다.

적당히 삶아낸 신선한 새우, 그린홍합, 낙지, 꽃게등을 넣고 콩나물, 당면을 밑에 깔아 특제 소스(고춧가루, 물엿, 과일, 고추장등)를 넣어 즉석에서 조리하도록 내놓는다.

돼지갈비해물찜은 밥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돼지갈비와 각종 해산물을 먹은 후 김가루와 참기름을 듬뿍 얹어 비벼먹는 맛이 일품이다.

'보글보글' 국물이 졸려지면 빠알강게 웃을 입을 돼지갈비와 해

산물들이 어떤 걸 먼저 먹을까 고민스럽게 한다. 돼지갈비는 과일양념으로 1차 삶아냈기 때문에 돼지냄새가 나지 않고 육질이 연해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고기맛이 첫가라앉을 바쁘게 한다.

아이들은 해산물 음식, 아빠는 얼큰한 국물을 생각해 가족간의 메뉴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광주시 서구 내방동 311-5 우아관(사장 김성근)에 가면 이러한 메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우아관은 한우생고기 전문점이지만 가을 맞이 메뉴로 '돼지갈비해물찜'을 마련했다. 삼호축산에서 엄선해서 가져오는 돼지갈비를 대과와 사과, 배 등 과일양념을 해서 1차 삶는다.

적당히 삶아낸 신선한 새우, 그린홍합, 낙지, 꽃게등을 넣고 콩나물, 당면을 밑에 깔아 특제 소스(고춧가루, 물엿, 과일, 고추장등)를 넣어 즉석에서 조리하도록 내놓는다.

돼지갈비해물찜은 밥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돼지갈비와 각종 해산물을 먹은 후 김가루와 참기름을 듬뿍 얹어 비벼먹는 맛이 일품이다.

'보글보글' 국물이 졸려지면 빠알강게 웃을 입을 돼지갈비와 해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 5개 만점)



합동법률경제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0 H.P.: 011-1770-3328.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Saejeong, Gwangju, and Gyeongju.

LC타워(주) (437-8004, 010-7154-6986) 첨단지구 LC타워. Real estate listings for high-rise buildings and commercial properties.

일가공인중개사 (234-8216, 011-608-0836) 상가건물 매매. Real estate listings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land.

대인동심일부동산 (223-1140, 010-002-2522)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Real estate listings for bath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255-0021, 011-612-3421) 현대 부동산. Real estate listings for modern properties and services.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Advertisement for wedding venues and services.